

정보화 능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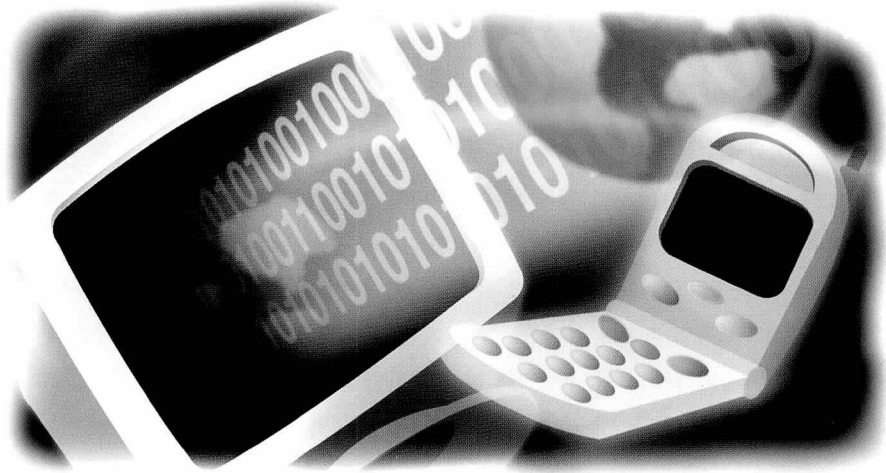
손연기/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millennium)를 맞이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언제나 그랬듯 현재 21세기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유토피아적 낙관론과 디스토피아적 비판론이 교차하고 있지만, 21세기 사회가 지금의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진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21세기는 '후기 또는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포스트모던사회(post-modern society)', '탈이념사회(post-ideology society)', '정보화사회(information society)'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개념이 바로 정보화사회이다.

일찌기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쇼크'를 통해 미래사회에 닥쳐올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한데 이어 '제3물결'을 통해 인류문명사회가 제1의 물결인 '농업사회'에서 제2의 물결인 '산업사회' 단계를 지나 이제 제3의 물결인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예언한 바 있는 미국의 역사사회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현대사회가 재화와 에너지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탈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인류사회와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이들의 예측과 전망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로서 실현되어가고 있다.

인류역사는 부단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의 흥망사를 돌이켜 볼 때 세계의 무대에서 승리하여 인류사회를 주도한 주역은 언제나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한 국가나 개인이었다. 반면에 거대한 역사의 변화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개인은 항상 역사의 무대에서 소외되거나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과 후진국은 200여년 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역사적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100여 전 우리 나라가 산업화의 물결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그 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또다른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구조나 운영논리로서는 정보화사회라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 새로운 문명사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사고와 행동 규범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재화와 에너지보다는 정보와 지식이 사회운영의 핵심 자원이 된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역저인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 인류 역사에서 권력의 원천이 처음 물리적인 힘에서 재화와 자본을 거쳐 이제 정보와 지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이를 잘 다루는 국가와 개인이 지배적인 권력이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의 핵심적 자원이자 권력의 원천인 정보와 지식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정보통신 인프라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다. 산업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도로와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수년간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이 개발 보급될 것이며 광대한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둘러싸고 이를 장악하기 위한 국가간의 정보통신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부문의 전면적인 자유화와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탈규제(Deregulation)'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국제무역질서를 관장하는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통신시장의 개방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초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일부 유선통신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국가간의 통신시장 장벽이 완전히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과거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 옴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규범의 해체로 사회적 통합력이 약화되는 등 국가의 진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복지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의 전면적인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화는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자 최선의 생존 전략이며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치·경제적,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물론 개인의 생존 발전을 위해서는 구시대의 패러다임을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역사의 전환기일수록 역사의 흐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착실하게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지금 우리는 산업사회의 지평을 넘어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다. 정보사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회의 구조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함께 새로운 문명사회가 요구하는 삶의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준비하는 자의 편이며 우리 시대에는 정보화 능력이 국가나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회원사 소식

한솔텔레콤, 기상청 네트워크 구축 사업자로 선정

한솔텔레콤(대표 윤재철)은 최근 기상청이 실시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주사업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새로 개설되는 영종도, 백령도 등의 기상대급 관서와 기존 기상대에서 사용중인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게 됐다.

이 회사가 이번에 수주한 장비 공급 규모는 약 10억원이며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 및 구축 업무를 비롯해 기술지원,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상청은 새로 구축되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기상대급 관서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측, 예보, 통계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솔텔레콤은 이번 프로젝트에 이어 하반기에 계획된 문산, 상주, 진도 등 기상청 3곳의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10억원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